

난관을 박차고 힘차게 전진하는 공화국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강남군 영진협동농장

공화국에서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때로부터 20여일이 흘러갔다. 이 나날 공화국의 근로자들은 방역형세가 아무리 엄중하다고 해도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향한 전진을 순간도 멈출수 없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생산과 건설을 중단없이 밀고 나갔다.

나라의 만아들인 금속공업부분의 강철전사들이 오늘의 일과일조를 투쟁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후 선철, 강철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량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보산제철소에서도 종전보다 1.1배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화학공업부분의 일꾼들과 노동자들도 비상한 분발력으로 펼쳐나갔다.

2.8비료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는 협동조직을 짜고들어 적장들사이, 생산공정들사이에 경쟁을 긴밀히 하면서 가정소다와 영화비닐을 비롯한 화학제품생산에 계획대로 내밀고 질소

비료생산에 장성시켰다.

5개년계획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의 첫날부터 혁신을 일으키는 각지 전력생산자들이 헌신성을 발휘하여 종전보다 더 많은 전력을 증산할 때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석탄공업부분의 탄부들도 과감한 투쟁으로 석탄생산을 늘어났다. 이 기간 개천, 안주지구 탄전들의 기본굴진, 준비굴진실적이 계획보다 확고히 앞섰으며 석탄공업성적으로 수백개의 예비체탄장이 마련되었다.

기간공업부분에서도 집단적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 건설, 견제공업, 경공업 등 인민경제전반에 활력을 부여하고있다.

평양326전선종합공장에서는 방역규정과 질서를 엄수하면서 각종 전선생산을 일정한대로 내밀고 있으며 구성공장기공공장, 평양배아림공장, 광책배아림공장, 안주부흥공장에서도 계획된 설비들과 부속품생산에서 양양을 일으키고있다.

비상방역대원과 대건설전투에서 다같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

한 일대 사상공세, 정치공세가 벌어지는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서 새로운 화성신화가 창조되어 총괄조판공을 앞두고있다.

김덕지구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천세대의 살림집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기 위해 치열한 돌격진을 벌이고있다. 로동당시대의 부흥과 문명을 상징하는 로동계급의 새 도시, 사상초유의 산악형복도시를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해 낮에 밤을 이어 분투하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해 대부분의 소중, 다층살림집들의 기초공사공사가 계속되었으며 기초공구리트리기를 끝낸 단위들에서는 집단적혁명의 불길높이 끝조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그 어떤 격난속에서도 조선로동당의 숙원사업을 거머쥘려는 건설자들의 애국심이 련도불러만 일어나고 일떠서는 련도 온실농장의 면모도 날마다 시간마다 달라지고있다.

사상최악의 중대위기에 선 인민생활보장을 그토록 중시하시며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은 경공업부문 일꾼들과 노동자들을 즐거운 생산투쟁으로 추동하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류연선발전공장의 노동자들이 일평균 105%의 실적을 내고있으며 원료, 자재의 재자원화현에 앞장선 풍성영예군인사출장화공장의 노동자들도 생산의 동음을 높이고있다.

지방공업부분의 수많은 공장들에서도 자체의 기술과 원료원천에 의존하여 생산을 중단없이 내밀고있다.

참으로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때로부터 20여일간은 본 나라 도처에서 생산자대중은 불가사의한 창조적 열정을 발휘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애국의 정신을 만장약한 인민이 있는한 그 어떤 격난도, 준엄한 시련도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향한 공화국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는 것이 반역전의 20여일이 새겨주는 징표이다.

김성국

약 한알, 쌀 1g에도 따뜻한 정이 넘쳐

엄혹한 방역형세속에서 공화국인민은 어느때보다 눈물을 많이 흘리고있다. 하늘도 감복시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목매어 울고 기쁨도 아픔도 함께 하며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제도가 고마워 눈시울을 적시고있다.

취녀가 기증한 의약품

얼마전 검병검진을 위해 담당 지역 주민들의 가정을 돌아보던 평천구역 특고종합진료소의 한 간호당의사가 특고2동 103인민반의 어느 한 가정을 찾았을 때였다.

《우리 가정의 성의입니다. 이 약을 주민들의 병치료를 리용해 주십시오.》

그 집의 딸인 평양교원대학의

김연희학생이 의약품들을 내놓으며 하는 말이였다. 순간 호담당의사는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 가 받은 의약품에는 이런 사연이 깃들여있었다.

T.V를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 서 준비한 삼비약품들을 본부당

특류영예군인의 아름다운 소행

는 가정들과 마음을 같이하고싶어 박영주녀성이 내놓은 식량수십kg과 많은 의약품들은 인민반의 여러 세대들에 가닿았다. 하지만 정성껏 포장한 미래를 고향에 받아안은 가정들에서는 미처 알수 없었다. 특류영예군인인 박영주녀성의 가정에도 식량이 넉넉치 않다는것을.

위원회에 바치시면서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제의하시였다는 소식에 집합 김연희와 가족들은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발걸음에 저도 심정의 박동을 맞추고싶었습니다.》

대학에 보낸 감사편지

얼마전 청진대학대의 일군은 도항구역 남향2동의 한 로인이 보내온 편지를 받았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다.

《우리 인민반에 검병검진을 하려고 나온 청진대학대과 고등학교 학생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고싶습니다. 며칠전 우리 집안의 사망을 독자치하던 손녀가 고열로

아파누웠습니다. 갑자기 부딪힌 일이어서 얼마나 당황하던지... 1살밖에 안되는 손녀가 아픔을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고 몸부림치는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랄바를 몰랐습니다. 이때 하얀 위생복을 입은 고등학교학생이 검병검진을 하려고 왔다가 이 사실을 알고는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

는것이였습니다. 얼마후 땀을 흘리며 다시 찾아온 그 학생의 손에는 귀한 약들이 쥐여져있었습니다. 학생이 가져다준 약을 먹고 손녀는 병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후에야 학생이 자기 집에 있던 삼비약물통을 가져왔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청년들을 키워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고싶습니다.》

본사기자 림광훈



어린이들의 모습에 비낀 두 현실

키련속에서 더 뜨겁게와랏은 후대야랑

지난 6월 1일은 국제아동절이다.

어린이들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고 행복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아동절이 제정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사회의 가장 큰 사랑을 독차지해야 할 어린이들이 학대와 멸시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이와 달리 공화국에서는 어린이들이 나라의 양로로 떠날때도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고있다.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건국 이래 대중들이 라고 할수 있는 격난의 시기에 더 높이 발휘되고있다.

얼마전 또 하나의 사실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며 전했었다. 지난 5월 15일 깊은 밤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돌아보시며 코로나 실험과 로고를 기술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보이며 공화국인민들 얼마나 크나큰 걱정으로 잠 못이루었던가.

인민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진 바로 그날은 온 나라 어머니들의 눈물을 젖게 해준 가슴뜨거운 후대사랑의 이

기도 태어났다. 그날 평양어린이시도품공장에서 한밤중에 애기젓가루, 암가루공급전투가 긴급조직되었다.

당시는 공화국에서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지 며칠밖에 안되던 때였다. 갑자기 뚝이닥친 시련앞에서 처음에는 누구나 당황했고 걱정을 앞세웠다.

의약품, 식량, 쌀감, 부식물... 누구나 여기에 관심을 돌리고 일꾼들도 그 해결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 다녔다.

그러한 때 나라앞에 닥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역전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애기젓가루, 암가루공급문제까지 세심히 관심해주시셨을 줄이오리라 할수 있었다.

바로 그렇게 조직된 애기젓가루, 암가루공급전투였다. 애기젓가루라는 말만 들어도 눈시울이 젖어드는 공화국인민들이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온 나라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불같은 진정을 리놓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더 친하게 잘 키우는데보다 더 중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수천수만금을 들여서라도 보다 개선된 양육조건을 지어주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최우선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고 하시며 국가적 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첫제품을 비롯한 영양 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하도록 해주실 줄이오리라.

어려운 날에 슬하의 자식들을 위하여 더 크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두어께에 걸머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회의참가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이 뜨거운 눈물을 쏟았었다. 이처럼 깊은 정이 어디에 있으랴 하는 생각, 이처럼 위대한 후대사랑이 어디에 있으랴 하는 격정에 온 나라가 밤깊도록 잠 못이루었다.

그러나 이번엔 또 다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기젓가루와 암가루문제에 대해 일이 관심해주시였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후대사랑에 의해 평양어린이시도품공장에서 애기젓가루, 암가루공급전투가 힘있게 벌어졌고 사연같은 《꽃망울》제품은 공화국의 방방곡곡에 가닿게 되었다.

고열로 항생제를 쓰면 것이 가는것때문에 안라개움의 눈물을 흘렸던 애기 어머니와 암가루를 받아안고 감격의 눈물,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아니라 온 나라 인민들이 감격의 눈물을 쏟고싶었다.

애기젓가루, 암가루를 실은 차들이 각지로 달리던 그때 1월8일수산사업소에서는 전국의 육아원, 예육원, 초동 및 중동학원, 양로원들에 보내줄 물고기를 실은 차들이 련이 출발했다.

원아들과 보양생들이 입맛을 잃을새라 마음쓰시며 공급날까지 앞당겨 신선한 물고기를 보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조직에 따른 긴급수송전투였다.

나라가 최대한의 시련을 겪고있는 속에서 공급된 애기젓가루와 암가루, 물고기... 며칠전에는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조건적으

로,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정책,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편지공업부분 공장들에서 소학교 학생들에게 공급할 새 형태의 여성교복생산을 결속하였다는 기본 소식도 전해졌다. 이렇듯 시련이 겹칠수록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어린이들에게 더 따뜻이, 더 속속들이 와닿고있으니 세상이 어떤 어머니사랑이 또 어디에 있던가.

나라의 왕인 어린이들을 위하여 바치시는 위대한 어머니의 열화같은 후대사랑에 의해 사회주의대가정 공화국에는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있다.

최대비상방역체속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해 또 다시 베풀어진 사랑은 공화국인민들에게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주저않고 있을 것이며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사회주의한길에 가고갈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주고있다.

오현주

학대와 공포에 시달리는 어린이들

- 남조선에서 -

남조선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고있다.

몇해전 남조선에서는 양부모가 태어난지 16개월밖에 안되는 어린애를 몇달동안이나 폭행하고 학대하다 못해 그의 배를 밟아 무참히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 사망의 격분을 자아냈다.

그런가 하면 어느 한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6개월동안이나 내버려두어 반미아랑 상태로 발견되는 참혹한 광경이 벌어졌으며 《어린이》의 한 교사는 태어난지 13개월밖에 안되는 어린이에게 발길질을 하듯 때리곤 3개월이내 부르짖는 폭행을 가하였다.

어느 한 부모는 어린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하여 알몸상태로 세게 한 후 팔찌대로 수없이 때려 문몸에 피멍이 들게 하고 수건을 입에 물게 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려 어린이를 죽였다.

2020년에만도 남조선에서 어린이학대피해사례가 무려 3만 905건으로서 2016년의 1만 8 700건에 비해 훨씬 늘어났다고 한다. 남조선인론들과 전문가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아동학대사건들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서 특

히 아동학대를 한 가해자의 82.1%가 부모들이라고 개탄하고있다.

한편 남조선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행위가 성행하여 불안과 공포를 자아내고있다.

제주도 어린이인양심살해사건, 안양초등학교유괴사건, 전주어린이유괴사건, 밀양초등학교학살사건 등 각종 범죄행위가 감행되고 있다.

오죽하면 한 남조선언론이 사회에서 어린이인권문제는 위험단계를 넘어섰다고 하면서 《참으로 어린이가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려면 사회이다.》라고 개탄하였겠는가.

남조선에서 생존을 위협하는 생활난에 쪼들리는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교육과 관련한 엄청난 부담을 감당할 길이 없어 자식을 버려거나 아이남기를 포기하고있으며 그런것으로 하여 남조선의 전체 인구 대 어린이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한다.

남조선어린이들의 비참한 처지는 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이 낳은 필연적산물이다.



윤석열대당이 《정부》의 《국정과정》에 어린이를 위해 아동학대방지체제를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어린이의 건강할 성장에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져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희망과 행복을 꿈꾸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떠벌리고있지만 그것은 한갓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한 미사리구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인론들과 전문가들이 어린이들의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생원국들이 사회에서 어린이인권문제는 위험단계를 넘어섰다고 하면서 《참으로 어린이가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려면 사회이다.》라고 개탄하였겠는가.

남조선에서 생존을 위협하는 생활난에 쪼들리는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교육과 관련한 엄청난 부담을 감당할 길이 없어 자식을 버려거나 아이남기를 포기하고있으며 그런것으로 하여 남조선의 전체 인구 대 어린이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한다.

남조선어린이들의 비참한 처지는 당국의 반인민적정책이 낳은 필연적산물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당국의 반인민적정책으로 하여 어린이들이 더욱 비참한 처지로 굴러떨어지고 미래가 암담한 사회현실을 개관하면서 어린이인권개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본사기자